



Deloitte in Media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제 38 호 | 2019.06.28

[마켓인사이트] 딜로이트 컨설팅, 새 대표에 '일본 매출 대박' 주역 영입(한국경제, 5.10)

내달 초 송수영 씨 취임 예정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송수영 딜로이트 컨설팅 재팬 최고경영자(CEO)를 한국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로 영입한다. 송 CEO 는 일본 컨설팅업계 최초의 한국인 수장으로, 딜로이트 컨설팅 재팬을 꼴찌에서 1 등으로 끌어올린 화제의 인물이다.

9 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송 CEO 는 한국 딜로이트 컨설팅의 새 대표로 다음달 초 취임할 예정이다. 송 CEO 의 한국 딜로이트 그룹 합류는 홍종성 딜로이트 안진 대표(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의 삼고초려로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7 년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에 따른 영업정지와 대규모 인력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3 월 홍 대표가 취임한 데 이어 송 CEO 를 컨설팅 대표로 영입하면서 시장 영향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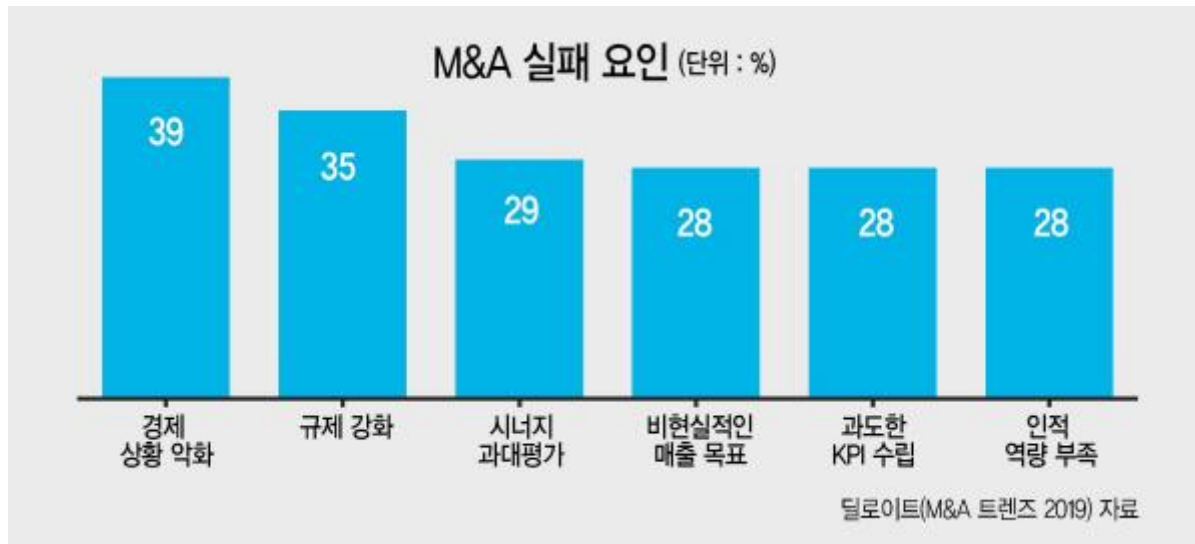


1963 년생으로 한양대 출신인 송 CEO 는 삼성전자에서 8 년간 근무한 토종 한국인이다. 1999 년 일본으로 건너간 뒤 소프트웨어업체인 SAP 등을 거쳐 2009 년 딜로이트 컨설팅 재팬에 입사했다.

그는 딜로이트 컨설팅 재팬에서 10 년 연속 프로젝트 수주 1 위에 올랐다. 이 기간에 이 회사가 매출은 5 배, 직원 수는 4 배 증가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딜로이트 컨설팅 재팬은 지난해 매출 7500 억 원, 연말 기준 임직원 수 3100 명에 달하는 일본 컨설팅업계 1 위 회사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송 CEO 는 일본에서 꼴찌였던 딜로이트 컨설팅 재팬을 1 위로 올려서 한 입지전적 인물로 유명하다"고 말했다.

기업 내부 '속사정'까지 꼼꼼히...딜로이트 안진 VCS 팀 (헤럴드경제, 5.13)

거래 안정성 높여 기업가치 극대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최근 신설한 밸류크리에이션 서비스(Value Creation Service·VCS) 팀에 눈길이 쏠린다. 제조원가나 판매관리비 내 비효율성 등 기업 내부 관계자조차 미처 깨닫지 못한 '속사정'까지 꼼꼼하게 살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서비스다. 다른 회계법인과는 차별화된 인수합병 후 통합관리(PM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올해 초부터 재무자문본부 딜(Deal) 부문에 VCS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팀은 운영(오퍼레이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업가치·매각가치 상승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안진회계법인은 딜로이트 글로벌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업계 최초로 이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VCS는 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 회수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팀이다. PE가 기업 인수 이후 내부 프로세스에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딜 경험을 축적한 안진회계법인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PE의 입장에서 제조업체의 경우 구매 절차에 문제는 없는지, 유통관리 업체의 경우 재고관리 프로세스에 문제가 없는지 기존 실무진을 통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안진회계법인은 특히 '바이아웃(경쟁권 인수) PE'들에게 이 서비스가 유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상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딜(Deal) 부문장은 "VCS 팀을 통해 내부 프로세스를 들여다보고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상각전영업이익(EBITDA)'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실제로 VCS 서비스의 성공경험이 있다. 2018년 롤스로이스(RollsRoyce)의 해양사업부문(Marine Division) 매각(7500억 원 이상 거래)이 대표적이다.

콩스버그그룹(Kongsberg Gruppen)이 인수자로 나섰는데 딜로이트가 해양사업부문이 취해야 할 조직과 정보기술(IT)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했다. VCS 팀에서 매각 이후 해양사업부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마련하고 수행방안과 수익성 개선 시점,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VCS를 통해 기업 가치가 재무뿐 아니라 '운영(Operation) 측면'에서 제대로 재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VCS 팀을 이끄는 이정현 이사는 "매각자 입장에서 때로는 자신들도 몰랐던 잠재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미래 기업 인수자와도 윈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핀테크기업 해외진출 돕기 위한 세미나 개최 (비즈니스포스트, 5.17)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논의

금융감독원이 제 1회 '핀테크기업 해외진출 세미나'를 연다.

금감원은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의 일환으로 23일 핀테크기업 해외진출 세미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해외 금융당국, 해외 핀테크랩 운영 금융회사, 글로벌 컨설팅사, 해외 유명 핀테크기업 등이 해외진출 전략 및 현지화 노하우를 발표하고 청중을 대상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금감원과 글로벌 컨설팅사 딜로이트의 업무협약 체결, 딜로이트의 해외진출 기회와 리스크 관리방안 주제 발표, 신한금융지주의 해외 핀테크 동향 발표 등이 진행된다.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낯선 시장환경, 규제장벽, 문화적 차이 등으로 성공적 정착 및 현지화가 쉽지 않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해외진출 전략 및 리스크 관리방안, 글로벌 교류 프로그램, 해외 금융당국 등이 직접 바라본 현지 핀테크시장 등을 설명하고 핀테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공급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해외 금융시장과 파트너십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G 유플러스 전자결제사업부 매각 작업 본격화 (더벨, 5.20)

자문업계 원매자 물색에 분주



LG 유플러스 E-Biz 사업부의 매각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LG 유플러스 측이 매각주관사로 딜로이트 안진을 선정하는데 이어, 투자은행(IB)과 회계법인 등이 원매자 측에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LG 유플러스 E-Biz 사업부는 전자결제대행업(PG)을 영위하고 있다.

17일 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LG 유플러스는 E-Biz 사업부의 매각을 위해 딜로이트 안진과 주관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측 법률자문사에도 국내 대형 로펌 중 한 곳이 선정됐으며, 현재 매각작업을 위한 티저레터(TM) 작성 등 사전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LG 유플러스가 비핵심사업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진 E-Biz 사업부는 'PG'(Payment Gateway)로 불리는 전자결제대행업을 영위하는 곳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할 시, 승인정보와 거래데이터는 PG사와 VAN사를 거쳐 카드사로 전해진다. 오프라인에선 PG사 없이 VAN사를 통해 거래데이터가 오간다. PG·VAN사는 중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그동안 LG 유플러스는 공식적으로 E-Biz 사업부의 매각 추진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IB 업계를 통해 물밑에서 매각 가능성을 타진해왔다. 딜로이트 안진이 해당 사업부의 매각주관사로 선정됨에 따라 조만간 원매자들 역시 인수자문사를 선정해 거래에 참여할 전망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자문사 선정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멘데이트를 부여 받지 못한 곳들은 원매자 편에서 거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원매 의향을 나타낸 일부 투자자가 회계법인 등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회계법인과 IB 를 중심으로 한 자문업계는 인수자문을 따내기 위해 다양한 원매자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적으로 같은 전자결제업에 있는 ΔNHN KCP ΔKG 이니시스 Δ네이버 등이 자문사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더해 MBK 파트너스 등 일부 재무적투자자(FI) 역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는 E-Biz 사업부의 가격은 4000 억 원 선이지만, LG 유플러스 측이 본격적인 입찰절차 이후에도 해당 가격대를 고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IB 업계에서는 해당 사업부의 실적이 축소됐다는 점을 들어 원매자의 눈높이도 낮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시장에서 보는 가격과 맞지 않는다고 LG 유플러스가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사업재편 흐름에 맞게 빠른 속도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 밀레니얼 87% “올 경제 나빠질 것” (헤럴드경제, 5.21)

딜로이트 컨설팅 '2019 밀레니얼 서베이' 발표...한국 밀레니얼 현재 생활 만족도 10%에 그쳐

딜로이트 컨설팅은 '2019 딜로이트 밀레니얼 서베이(The 2019 Deloitte Millennial Survey)'를 인용, 국내 밀레니얼(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 세대 중 단 13%만이 올해 한국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21일 밝혔다.

국내 밀레니얼 세대 중 87%는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는 설명이다. 정치·사회에 대한 응답자의 16%만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는 지난해 경제 전망(48%), 정치·사회 전망(52%)보다 35%포인트 이상 감소한 수치다. 현재 생활만족도 역시 응답자의 10%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전 세계 밀레니얼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도, 올해 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년만에 최저치다. 이들 중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9% 수준이다.

한국 밀레니얼 세대들은 타국 밀레니얼 세대와 달리 높은 연봉과 부유함에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요소를 꼽은 비율은 63% 수준이다. 자가 소유(56%), 세계여행(38%), 커리어에서의 상위 직급 달성(35%), 가정을 이루거나 아이를 갖는 것(2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을 제외한 타국 밀레니얼 세대들 역시 높은 연봉과 부유함을 원했지만, 한국보다는 낮은 응답비율(52%)을 보였다. 대신 세계여행을 떠나거나(57%)나 지역사회를 돕는 쪽(46%)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한편, 한국 밀레니얼 세대 응답자 중 52%가 “2년 이내에 현 직장을 떠날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5년 이내에 현 직장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지난해 보다 높아진 32%(지난해 27%)를 기록했다.

배정희 딜로이트 컨설팅 전문가는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은 글로벌 밀레니얼 세대와는 다른 성장배경을 가지고 있다”며 “입시 위주의 청소년기와 많은 규제와 획일화된 기준들을 강요하는 사회 배경으로 인해 이전 세대와 같은 전통적인 성공지표를 추구하고, 모험에 대한 두려움 역시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새로운 모험심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고, 유동적인 커리어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고용이 창출되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로 여덟 번째인 밀레니얼 서베이는 딜로이트 글로벌이 매년 발표해온 것이다. 이번 서베이에는 전세계 42개국 1만 3416명에 달하는 밀레니얼 세대(1983년부터 1994년 출생자)와 10개국 3009명의 Z세대(1995년부터 2002년 출생자)가 참여했다.

'자율구조조정 1 호' 다이나맥 매물로 나왔다 (파이낸셜뉴스, 5.22)

스토킹호스로 선정...ARS 적용 1 호 기업 눈길



자동차부품업체 다이나맥이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회생절차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결합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적용 받은 첫 번째 기업이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다이나맥의 매각주간사 딜로이트 안진은 다음달 3일까지 원매자들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접수받는다. 본입찰은 같은 달 26 일이다.

이번 매각은 우선적 예비 인수희망자가 있는 스토킹호스

방식이다. 본입찰 참여자가 제시한 가격과 동일하거나 이상으로 예비 인수희망자가 가격을 써내면 예비 인수희망자가 인수하게 된다. 앞서 파인우드 프라이빗에쿼티 (PE)와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다이나맥의 예비 인수희망자로 선정됐다.

다이나맥은 브레이크 피스톤, 파워트레인 등을 생산해 현대·기아차와 BMW, 폭스바겐 등 국내외 완성차업체에 공급해왔다. 핵심 납품처인 현대·기아차의 실적 부진, 중국과의 사드 갈등 등 악재가 겹치면서 2017년부터 실적이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해 66 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해 9 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직후엔 ARS 프로그램 1 호 기업으로 선정됐다. ARS 는 회생절차를 신청한 회사가 최대 3 개월간 채권자들과 자유롭게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회수 조치를 막을 수 있는 회생절차의 장점과 금융권의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의 강점을 결합했다. 다이나맥은 석 달 동안 여러 투자자와 매각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신규자금 수혈이 무산되면서 자율적 구조조정에 실패했고, 통상적인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딜로이트 안진, 신입회계사 채용...“200 명 이상·여성 30% 뽑는다” (아시아경제, 6.19)

8 월 31 일까지 지원서 접수·9 월 16 일 첫 근무

“영어면접 잘 보면 해외 파견근무 기회”

연중 상시감사제·재량근무제 시행 예정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오는 9 월까지 4 개월간 올해 신입 회계사 정기채용 일정을 시행한다고 19 일 밝혔다. 200 명 이상 뽑을 예정인데 여성 비중을 30%로 늘린다는 전언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정기채용에서 예비 신입 회계사들에게 세계 일류 (Global No.1), 다양성 존중, 수평적 조직문화란 세 키워드를 중심으로 법인의 성장전략·조직문화를 어필할 예정이다.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는 물론 세무자문, 재무자문, 리스크자문 등 비감사 부문 등에서도 회계사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돼 200 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다음달 1 일부터 캠퍼스 채용설명회를 한다.

딜로이트 안진은 전체 합격자 중 30% 이상을 여성 회계사로 채용할 계획이다. 지금도 딜로이트는 법인 내 젊은 여성 파트너로 구성된 디-윈(D-WIN, Deloitte Women's Initiative Network)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법인 내 여성 인력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저연차 직원들을 위한 멘토링을 하고 있다.

딜로이트 안진은 다음달 1 일 한양대학교를 시작으로 국내 12 개 대학캠퍼스에서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홍중성 대표이사가 한양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캠퍼스를 찾아 직접 진행한다. 회사 측은 학교와 전공에

제한을 두지 않고 뽑을 것이라고 전했다.

딜로이트 글로벌에서 정의한 인재표준(Deloitte Talent Standard)을 활용한 구조화 면접, 영어면접 등을 할 예정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영어면접 고성과자는 해외파견근무 기회를 일찍 얻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딜로이트 안진은 회계사들에게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싱가포르 딜로이트 유니버시티(Deloitte University) 연수를 받을 기회를 준다. 딜로이트 유니버시티의 현재 가치는 1 조원이 넘는다고 회사 측은 알렸다.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복지 강화에도 나선다. 주 52 시간 제도를 위한 연중 상시감사제, 재량근무제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채용을 시작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적극 활용해 밀레니얼 세대 채용을 할 계획이다.

홍종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는 "딜로이트는 세계 150 개국에서 일할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라며 "개인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수평적인 소통을 추구하는 조직문화 속에서 모든 임직원이 세계적인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말부터 입사지원서를 받고 있다. 지원서는 딜로이트 안진 홈페이지 내 커리어 섹션(Career Section)을 통해 내면 된다. 지원 시 희망 본부도 선택할 수 있다. 오는 8월 31일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최종 합격한 신입 회계사들은 오는 9월 16일부터 근무하게 된다.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2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19.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